조세재정Brief
KIPF ISSUE PAPER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 hong@kipf.re.kr

01 들어가는 글
02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0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2023. 3. 23.
No.1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요약

○ 납세의식이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인 반면, 납세순응은 내재적 동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국가 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납세순응이며,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납세의식보다 납세순응이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임
- 그러나 납세의식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납세순응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식의 제고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납세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민의 납세의식은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 나아가 정부 신뢰도, 납세협력 부담에 영향을 받음

- 사회적 규범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고,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세입과 세출 과정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능한 정부, 부정부패 없는 정부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납세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납세협력 부담의 감축도 납세의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젊은 계층에 대한 조세교육도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01 들어가는 글

○ 납세의식(tax morale)은 세금을 내려는 내재적 동기이며, 납세순응(tax compliance)은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임

- 납세의식의 제고는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지만, 납세순응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납세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납세순응이 더 중요한 개념이지만, 납세의식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납세순응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식의 제고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

○ 본 연구는 국민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02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함
- 2022년 12월 기준 주민등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지역을 비례 할당하였으며, 소득, 근로형태 등의 분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례적으로 표본 대상을 선별함
- 조사기간은 2023년 1월 5일(목)부터 2월 2일(목)까지임

○ 본 연구는 납세의식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인 이혜원(2012), 박명호(2015)와 유사한 설계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 선행연구들은 분석에 쓰인 납세의식 지표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반면, 본 연구는 내재적 동기라는 정의에 입각하여 납세의식 지표를 더욱 세밀하게 생성한 차이점이 있음
-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2. 분석 결과

○ **(세금에 대한 인식)** 국민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지인들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 부정직한 세금 납부 시 자신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일 것(74.3%)이라고 생각하여 사회적 규범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임
-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함

○ 조세제도 이해도에 있어서 스스로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설문 난이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

○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내재적 동기에 의한 답변은 전체의 42.0%임
-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71.3%에 달하여 여기서도 사회적 규범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으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임
- 국민개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소득이 낮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많이 나타남
- 한편,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에 비하여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할 경우 전체의 36.1% 정도가 정부의 혜택 수준에 만족함

○ **(납세의식의 변화 추이)** 2012년과 2015년 조사에 비하여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임
- 국민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66.3%로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됨
- 세금 이해도는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여 과반(55.0%)을 차지하고, '대체로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2015년에 비해 많이 감소함

○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에 대한 응답, 특히 엄밀한 의미의 납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의무이므로 전부 납부한다'는 답변은 2015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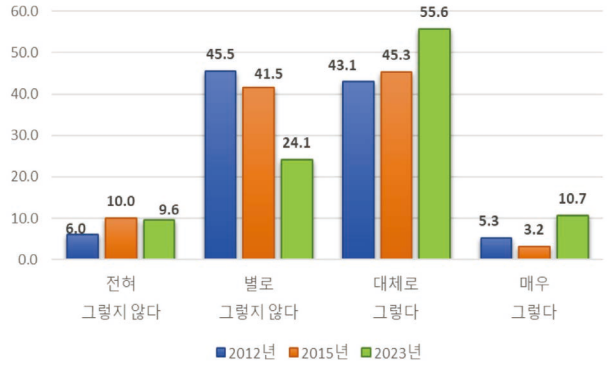
표 1 설문 문항의 구성

지표	구성요인	설문 항목
사회적 규범	기술적 규범	Q1: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령적 규범	Q3: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4: 만약 귀하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은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된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귀하에 부정적 인식을 지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조세 이해도	주관적	Q5: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	Q6~8: 부가가치세율,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소득세 최고세율
성실 납세 의향	납세의식	Q9: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납세 회피 성향	Q10: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습니까? Q11: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상) 납세순응		Q12: (가상 시나리오 1)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현금매출액 1천만원을 정직하게 소득신고하시겠습니까?(국세청이 적발할 가능성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없음) Q13: (가상 시나리오 2) 60만원짜리 가전제품 구매 시, 업주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하면 5% 할인해 주겠다' 제안 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세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Q14: 우리나라는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15: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아예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평적 형평성	Q16: 귀하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환의 형평성	Q17: 귀하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납세협력 부담 (납세편의성)		Q18: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Q19: 국세청이 국민에게 필요한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 신뢰도		Q20: 귀하는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인 국세청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탈세 발각 가능성		Q21: 귀하는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벌 강도		Q22: 귀하가 사업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벌금이나 형사 처벌 등의 처벌 수준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3: 최근 과세관청이 과거에 비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복권 구입 여부, 소득 수준

자료: 이혜원(2012), 박명호(201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국민의 성실납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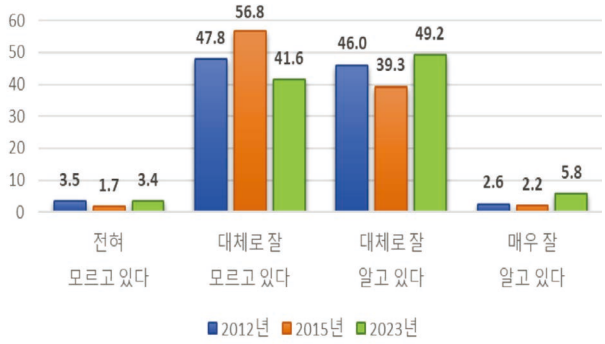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2년,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 세금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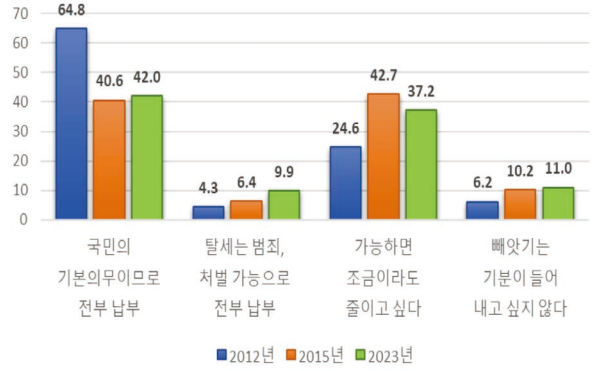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2년,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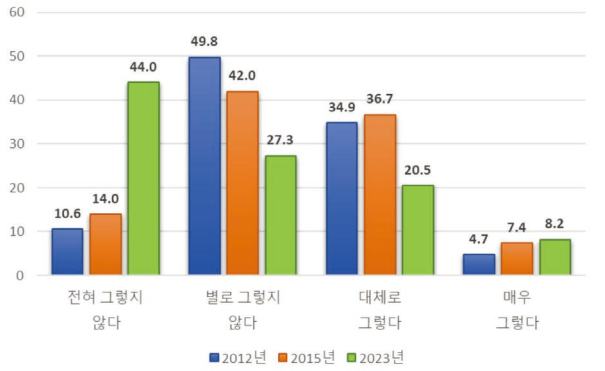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2년,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2년,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적발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세금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많이 증가하여 사회적 규범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의 형평성은 2015년보다 긍정적인 대답이 많이 증가하여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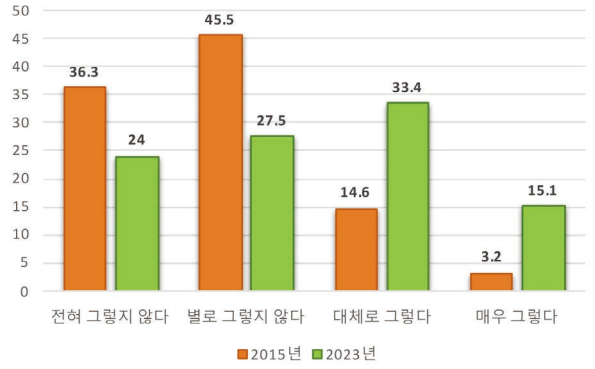
-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응답에서 '비슷하다'는 응답이 과거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까지 합하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음

○ 국세행정 및 국세청 신뢰도도 2015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신뢰도는 2015년의 13.7%에 비하여 2023년 34.7%로 증가하였고, 특히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이 2015년에 비하여 9배가량 증가한 9.4%이며, '약간 신뢰한다'도 2배 이상 증가한 25.3%를 보임
- 세무신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72.9%가 세무신고의 편의성에 대하여 적절하거나 적은 편이라고 대답하여 2015년의 58.4%에 비하여 신고의 편의성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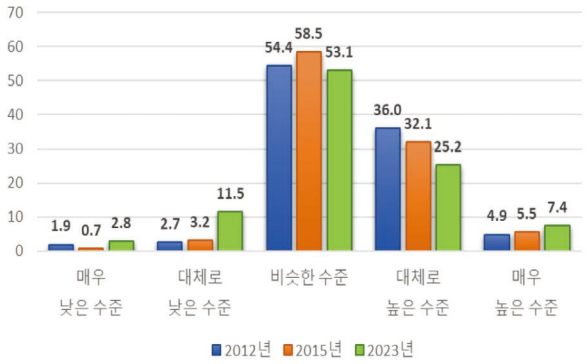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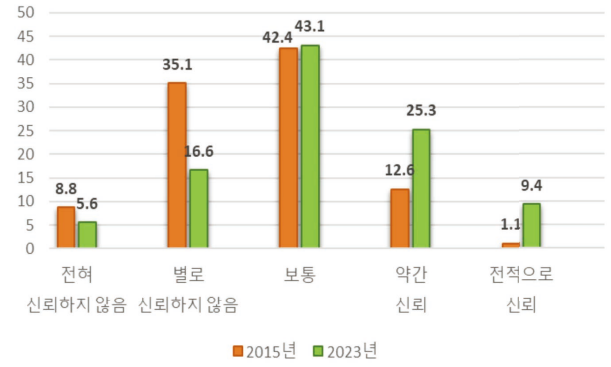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2년,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7 국세청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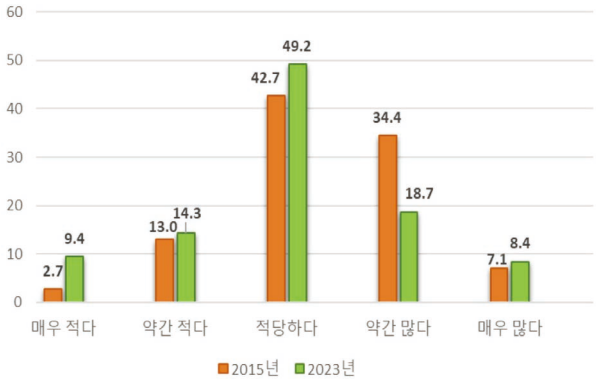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8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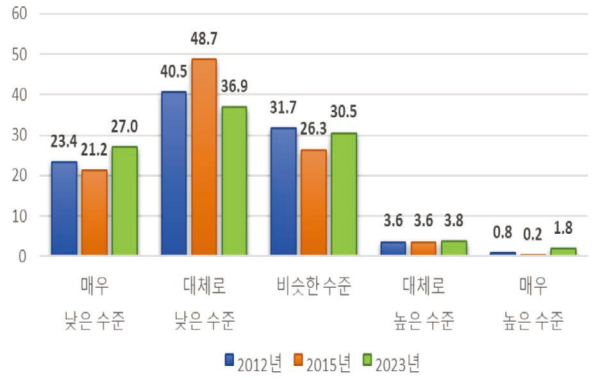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9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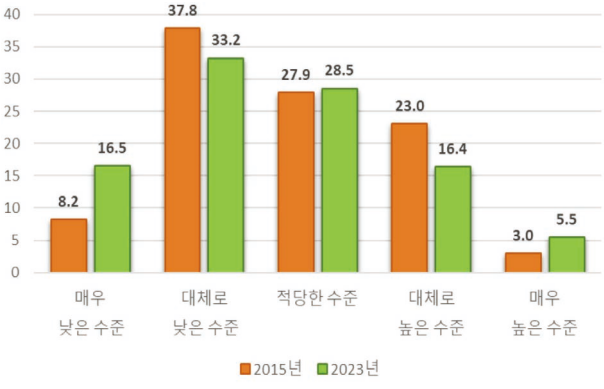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2년,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0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



자료: 박명호(2015)의 2015년 자료와 2023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 서비스의 만족도는 '비슷하다'를 포함하여 1/3 수준에 그치나, 긍정적인 대답은 다소 증가함
- 탈세 적발 시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높다'와 '적당하다'는 응답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납세의식과 관련한 지표들을 〈표 1〉의 분류에 따라 설문 문항 1~3개의 응답 값을 이용하여 생성함
- 예를 들면, 성실납세 의향은 Q9~11, 납세순응은 Q12~13의 응답을 사용함
- 각 문항 답변의 평균값을 구한 후, 그 평균들을 0~100으로 정규화시킴
- 대부분 복수의 문항을 이용하여 지표를 계산하였으며, 이 경우 각 설문 문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별 지표를 생성함

○ 납세의식은 내재적인 동기로 보아 Q9의 응답 중에 '①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만 납세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더미=1), '②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③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④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전부 납세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처리함(더미=0)

○ 이런 방식으로 납세의식과 관련하여 생성된 지표의 인구특성별 차이는 〈표 2〉에서 볼 수 있음
- 성별의 경우, 성실납세 의향과 납세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조세 이해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예외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성실납세 의향과 납세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높아지는 결과는 OECD(2019)의 결과와 상응함
-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실납세 의향과 납세의식은 낮게 나타나지만, 납세순응 행위를 보면 학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의 경우에도 성실납세 의향과 납세의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납세순응 행위는 이 두 가지 지표만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국세청 신뢰도와 탈세 적발 가능성이 높을수록 성실납세 의향, 납세의식, 납세순응 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처벌 강도와 관련해서는 높은 경우에 성실납세 의향과 납세의식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지는 않음
  - Bénabou and Tirole(2006)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외적인 징수 요인(enforcement)이 사회친화적인 행동(prosocial behavior, 여기서는 납세의식)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임. 심리학에서 과잉정당화효과(overjustification effect)라고 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보상이나 처벌이 내면의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없애는 현상을 말함

○ 납세의식 관련 지표들을 사용하여 납세순응과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판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납세순응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의향, 사회적 규범이 1% 수준에서, 조세 이해도가 10%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납세의식에 대해서는 사회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 신뢰도가 1%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납세협력 부담이 5%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회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 신뢰도, 납세협력 부담이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목표 내지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납세순응 제고를 위하여 조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교육의 중요성도 지적할 수 있음

표 2 주요 인구특성별 납세 지표의 차이

구분		응답자 수 (명)	성실 납세 의향	조세 형평성	사회적 규범	조세 이해도	납세 순응 행위	납세 의식
전체		2,400	60.1	48.4	58.4	47.5	50.6	60.9
성별	여성	1,176	62.2	48.4	58.5	45.4	50.4	64.7
	남성	1,224	58.0	48.4	58.3	49.5	50.7	57.3
연령	20대	266	58.6	54.6	66.4	39.2	52.7	60.4
	30대	513	55.9	50.6	60.8	49.1	51.8	55.0
	40대	626	57.4	47.1	56.5	48.5	49.2	58.0
	50대	668	63.7	46.3	56.7	48.8	50.8	65.5
	60대	327	65.3	46.6	54.8	47.1	48.9	67.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3	68.5	45.3	56.3	40.0	51.3	72.8
	고졸	872	60.7	46.9	56.0	44.1	49.9	61.4
	대졸	1,210	58.9	49.9	60.2	50.0	51.2	59.3
	대학원 이상	165	57.5	47.7	59.2	53.9	48.9	60.0
소득 수준	4천만원 미만	1,307	62.6	49.2	58.6	43.8	52.6	64.4
	8천만원 미만	783	57.5	48.9	58.4	50.3	47.6	57.3
	8천만원 이상	310	56.1	43.5	57.7	56.1	49.4	55.5
복권 구입 유무	경험 없음	1,002	62.3	49.5	59.8	46.7	51.7	63.8
	경험 있음	1,398	58.5	47.6	57.4	48.1	49.7	58.8
자영업자 여부	비자영업자	2,062	61.5	48.8	58.8	46.5	50.9	62.8
	자영업자	338	51.2	45.7	55.7	53.6	48.3	49.6
배우자 유무	없음	1,553	60.1	47.2	56.7	49.6	49.4	60.7
	있음	847	60.0	50.5	61.4	43.6	52.7	61.3
국세청 신뢰도	낮음	533	53.4	41.7	51.1	47.1	46.2	52.4
	높음	1,867	62.0	50.3	60.5	47.6	51.8	63.4
탈세 적발 가능성	낮다	1,680	58.8	47.0	56.0	47.9	49.4	59.6
	높다	720	63.0	51.7	64.0	46.6	53.3	64.1
처벌 강도	낮다	1,192	60.6	47.1	55.5	47.5	49.6	61.0
	보통	683	61.5	50.9	61.1	47.0	52.9	63.5
	높다	525	57.1	47.9	61.4	48.1	49.7	57.5
납세협력 부담	낮다	569	60.1	47.2	56.7	45.9	47.8	60.1
	보통	1,181	62.8	50.4	59.1	48.3	52.5	65.0
	높다	650	55.2	45.8	58.6	47.4	49.5	54.2

자료: 저자 작성

0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의 납세의식은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납세협력 부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인의 의식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음

(제언 1) 사회적 규범

○ 사회적 규범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태도나 가치관으로 납세의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납세순응에도 영향을 미침

- 사회적 규범은 그 사회의 문화와 구성원의 개인적 규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움
-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규범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최근 발달한 개인 미디어를 통하여 납세와 관련한 거짓 정보 등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정책 당국은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 사회적 규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제언 2) 조세제도의 형평성

○ 조세제도가 수직적·수평적으로 공평하다는 인식을 주어야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임

- 소득세의 누진도, 자산에 대한 과세의 경중 여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여 국민에게 형평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함

(제언 3) 정부의 신뢰도

○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자신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를 정부에 요구할 수는 없으나, 국가로부터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상승할 것임
- DeBacker, Heim, and Tran(2012)에 따르면 미국에서 2만 5,000개의 외국인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소유주 본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조세 회피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세입과 세출 과정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능한 정부, 부정부패 없는 정부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납세의식의 제고로 연결될 것임

(제언 4) 납세협력 부담

○ 국민이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협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IT 신기술을 이용한 납세편의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계층의 납세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에 들어있지 않지만, 납세협력 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방안은 세제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각종 공제를 비롯한 조세특례 등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세제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본인이 낼 세금이 무엇이고, 적어도 납부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언 5) 조세교육

○ OECD(2019)의 연구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고, 본 설문조사에서도 20대의 조세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세교육을 통하여 조세 이해도를 높여 납세의식, 나아가 납세순응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등 학생부터 조세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여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본원은 2023년부터 조세교육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바,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국민 행복과 납세의식

○ Ciziceno and Pizzuto(2022)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정부에 대한 신뢰 및 문화적인 채널을 통하여 납세의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 쉽게 말하면 '국민이 행복하면 납세의식도 높아진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는 정부 정책의 종합적인 결정판에 달렸다고 하겠음
-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으나, 국민이 행복할수록 납세의식도 높아진다는 명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음
- 국민의 행복이야말로 모든 정부 정책의 궁극적 목표임을 다시 일깨워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박명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이혜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제198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pp. 22~37.

〈외국 문헌〉

• Bénabou, Roland, and Jean Tirole, "Incentives and Prosocial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2006, pp. 1,652~1,678

• Ciziceno, Marco, and Pietro Pizzuto, "Life Satisfaction and Tax Morale: The Role of Trust in Government and Cultural Orientation," *Journal of Ba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7, 2022, https://doi.org/10.1016/j.socec.2021.101824

• DeBacker, Jason, Bradley T. Heim and Anh Tran, "Importing Corruption Culture from Overseas: Evidence from Corporate Tax Evasion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17770, NBER, 2012.

OECD, "Tax Morale: What Drives People and Businesses to Pay Tax?," 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 | www.kipf.re.kr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본 발간물은
친환경 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